

한국사

2019. 4. 6 국가직 9급 한국사 기출 해설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의 난도(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너무 쉽게 출제되어 열심히 학습한 다수 수험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습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건지에 대해 고민을 느꼈으리라 본다. 결국 합격선은 95정도는 얻어야 하는 정도의 문제였기에 변별력에서는 매우 아쉬움이 있었다.

한국사는 시행처에 따라 출제 난도의 편차가 크기에 이번 시험에 연연하지 말고 꼭 합격해야 할 지방직 시험은 약간의 난이도 조정은 있겠지만 고득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자기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에게 즐거운 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

민주국사 박민주

< 문항 분석 >

출제영역	수	2019년	유형	난도
한국사의 바른 이해	0	-	-	-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 (구석기~철기)	2	• 청동기 시대	서술형	하하
		• 부여와 동예	사료형	중하
고대 사회의 발전 (삼국~남북국)	2	• 발해 무왕	사료형	하하
		• 신라 중대 정치	도식형	중중
중세 사회의 발전 (고려시대)	3	• 고려 인종	사료형	하하
		• 전시과	사료형	중상
		• 삼국유사	사료형	하하
근세 사회의 발달 (조선 전기)	3	• 경국대전	사료형	하중
		• 중앙통치기구	지문형	중중
		• 서원	사료형	하중
근대 사회의 태동 (조선 후기)	1	• 경제생활	사료형	중중
근대 사회의 전개 (구한말)	4	• 조·일수호조규와 조미수호통상조약	사료형	하중
		• 동학혁명운동	사료형	중상
		• 구한말 사건	도식형	중상
		• 박은식	지문형	중하
민족의 독립 운동 (일제시대)	2	• 3·1운동	사료형	하상
		• 한국독립군	지문형	중중
현대 사회의 발전 (광복 전후~현대)	1	• 현대사 사건 순서	지문형	중하
통합형	2	• 단군에 대한 인식	서술형	중하
		• 우리나라 문화유산	서술형	중상

1.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천전곡리에서는 사냥도구인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② 창원 다호리에서는 문자를 적는 붓이 출토되었다.
- ③ 강화 부근리에서는 탁자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는 곡물을 담는 빗살무늬토기가 나왔다.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청동기 시대 유적과 유물

● 해설 :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잉여생산물의 축적과 더불어 계급의 분화로 군장(족장)이 등장하면서 축조한 무덤으로 정치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 강화도 부근리 등에서 탁자식(복방식) 고인돌이 축조되었다.

① 연천 전곡리는 구석기 전기에 해당하는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출토되었다.

② 창원 다호리는 철기 시대 한자의 전래를 보여주는 붓이 출토되었다.

④ 서울 암사동은 신석기 시대 움집과 더불어 빗살무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2019년 민주국사 P. 54, 57, 67, 70, 798

2. (가), (나)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음력 12월에 지내는 제천행사가 있는데, 이를 영고라고 한다. 이때에는 형욕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주었다.

(나) 해마다10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며 노래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고 한다. - 『삼국지』 -

- ① (가)-5부가 있었으며,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하였다.
- ② (가)-정치적 지배자로 신지, 읍차 등이 있었다.
- ③ (나)-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 ④ (나)-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나 소, 말로 변상하였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부여와 동예

● 해설 : (가) 부여와 (나) 동예에 대한 내용이다.

④ 동예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는 책화(柵貨)가 있었다.

① 고구려는 5부가 있었으며, 태조왕 때 계루부에서 왕위를 세습하기 시작하였다.

② 삼한은 정치적 지배자로 대족장인 신지, 견지와 소족장인 읍차, 부례가 있었다.

③ 삼한은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에 들어가면 정치적 군장이 잡아가지 못하였는데 제정분리를 엿볼 수 있다.

●2019년 민주국사 P. 83~89

3. (가) 왕의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나라여서 요와 우리나라를 섬겼으나, 지금은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중략)... 작은나라로서 큰나라를 섬기는 것은 선왕 의도이니, 마땅히 우선 사절을 보내야합니다.”라고 하니 (가) 이/가 그 의견을 따랐다.

- 『고려사』 -

- ①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 ②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를 보급하였다.
- ③ 서경에 대화공을 짓게 하고 칭제건원을 주장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고려 인종
- 해설 : 고려 인종 때 이자겸, 척준경, 김부식 등이 금의 사대 요구를 수락하면서 복진 정책이 사실상 좌절되었다.
- ③ 묘청, 정지상의 건의에 따라 인종은 서경에 대화공을 짓게 하고 천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개경과 김부식 등의 반대로 실패하자 묘청 서경파는 칭제건원, 금국정벌, 등을 주장하면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하 하여 난을 일으켰다.
- ① 충렬왕은 도병마사를 개편하여 도평의사사로 개편하고 2성 6부를 1부 4사로 개편하였다.
- ② 충렬왕은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주자가례와 소학을 보급하였다.
- ④ 몽골의 침략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우(고종)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 2019년 민주국사 P. 302~303, 328

4. 밑줄 친 ㉠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중략)...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하였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만세운동이었다.

- 네루, 『세계사편력』 -

- ① ‘암태도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 ② ‘정우회 선언’이 발표되었다.
- ③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3·1 운동
- 해설 : 제시된 사료는 1919년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 ③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 쓰시마에서 돌아와 고종의 밀조로 1912년 조직하여 총독부 등에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였다.
- ① 암태도 소작쟁의는 1923년 일으며 소작료를 낮추는 성과를 이루었다.
- ② 정우회 선언은 1926년 분과 투쟁의 청산, 사상단체의 통일 등을 주장하여 신간회 창립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④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는 1922년 2차 조선 교육령에 따라 대학 설립이 가능하자 이상재 등이 창립하였다.
- 2019년 민주국사 P. 1035, 1096, 1112, 1138, 1042(사료)

5. 밑줄 친 ‘성상(聖上)’대에 편찬된 서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가 신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법의과목(科目)이 너무 번잡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 다듬어 자손만대의 성법(成法)을 만들고자 한다.” 라고 하셨다. 「형전(刑典)」과 「호전(戶典)」은 이미 반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나머지 네 법전은 미처 교정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성상(聖上)께서 세조의 뜻을 받들어 여섯 권의 법전을 완성하게 하여 중외에 반포하셨다.

- ① 『동국병감』은 고조선에서 고려말까지의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 ② 『동몽선습』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이다.
- ③ 『삼강행실도』는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 ④ 『국조오례의』는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조선 성종
 ● 해설 : 세조 때 경국대전의 호전과 형전이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① 동국병감은 문종 때 고조선 시대 한무제의 침입에서 고려 말까지의 전쟁사를 정리한 병서이다.
 ② 동몽선습은 조선 중기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로 기자로부터 이어지는 소중화 의식을 담고 있다.
 ③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모범적인 효자·충신·열녀를 다룬 윤리서이다.
 ④ 국조오례의는 성종 때 국가와 왕실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이다.
 ●2019년 민주국사 P. 577, 580, 590

6. (가)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職官)·산관(散官) 각품(品)의 (가)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하였다. - 『고려사』 -

- ① 4색 공복을 기준으로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 ②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 ③ 전임관료와 현임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지급하였다.
- ④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전시과
 ● 해설 : 직산관(職散官)에게 관품보다는 인품과 충성도를 고려하여 전지와 시지를 전국에 지급한 것은 시정전시과로 경종 때이다.
 ① 시정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경종 때 문반, 무반, 잡업으로 나누어 지급 결수를 정하였다.
 ② 경정전시과는 문종 때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무반의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고 한외과가 폐지되는 등 전시과가 완성되었다.
 ③ 과전법은 공양왕 때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를 대상으로 경기지방에 한하여 전지만 지급하였다.
 ④ 역분전은 태조 때 고려의 건국과정에서 충성도와 공로에 따라 경기에 한하여 차등 지급되었다.
 ●2019년 민주국사 P. 357~358

7. (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나)	
을미사변 발발	을사조약 강제 체결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전개	

- ① (가) -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 ② (가) - 신민회는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되었다.
- ③ (나) -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을 내렸다.
- ④ (나) -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보안회가 창설되었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구한말의 사건
- 해설 : 제시된 (가)의 을미사변에 대한 반발로 을미의병(1895년)이 일어나고 (나)의 을사조약(1905년) 체결, (다) 13도 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1908년)에 해당된다.
- ① 시전상인을 중심으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1898년)되어 독립협회와 더불어 상권 수호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② 신민회는 일제가 테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105인 사건(1911년)으로 와해시켰다.
- ③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곡물 수출을 막는 방곡령(1889년)을 내렸으나 일본은 조일 통상장정을 구실로 배상금을 요구하면서 실패하였다.
- ④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반대하기 위해 원세성, 송수만 등이 보안회를 조직(1904년) 조직하였다.
- 2019년 민주국사 P. 857, 927, 962, 966

8. (가) 왕대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은/는 흑수말갈이 당과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하여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다. 또한 일본에 사신 고제덕 등을 보내 “여러 나라를 관장하고 여러번(蕃)을 거느리며,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여 강국임을 자부하였다

- ①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꾸었다.
- ② 신라는 급찬 승정을 발해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장문휴가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발해 무왕
- 해설 : ④ 발해 무왕 때 흑수부 말갈과 대립하다 그의 동생 대문예가 오히려 당에 투항하였으나 당이 보내오지 않자 장문휴가 당의 산둥 지방 덩조우(등주)를 공격하였다.
- ① 대조영 때 돈화시 동모산에 698년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진국(震國)이라 하였다가 713년 발해(渤海)로 바꾸었다.
- ② 신라 하대 헌덕왕 때 급찬 승정을 812년 발해(희왕 무렵)에 사신으로 보냈다.
- ③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발해 문왕 때이고 무왕 때는 인안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 2019년 민주국사 P. 154~155

9.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군은 사도하자에 주둔 병력을 증강시키면서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새벽에 적군은 황가둔에서 이도하 방면을 거쳐 사도하로 진격하여 왔다. 그런데 적군은 아군이 세운 작전대로 함정에 들어왔고, 이에 일제히 포문을 열어 급습함으로써 적군은 응전할 사이도 없이 격파되었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다.
- ② 미쓰야 협정이 체결되기 직전까지 활약하였다.
- ③ 한국독립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도 수행하였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하였다.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 해설 : ③ 만주사변(1931년) 이후 지청천의 한국독립군은 중국호로군과 연합하여 사도하자,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일·만 연합군을 격퇴하였다.
- ① 양세봉이 총사령관이었던 부대는 조선혁명군이다.
- ② 미쓰야 협정의 체결은 1925년이다.
- ④ 조선민족전선연맹(1937년)은 김원봉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조직하였으며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조선의용대(1938년)을 창설하였다.
- 2019년 민주국사 P. 1075, 1079

10. 밑줄 친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서울 안팎과 변화한 큰 도시에 파 · 마늘 · 배추 · 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지방의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밭, 강진의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1척, 깊이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1묘마다 고랑3개와 두둑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 ①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②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 『감저보』, 『감저신보』 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④ ㉣- 발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였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임란 이후 경제
- 해설 : ① 정조 때 신해통공을 반포(1791년)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② 담배는 임진왜란 이후 전래되어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 ③ 고구마가 영조 때 조엄이 일본에서 전래하면서 강필리의 『감저보』, 김장순의 『감저신보』 등이 편찬되었다.
- ④ 발농사에서는 고랑에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새롭게 시작되어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 2019년 민주국사 P. 728, 739

참고

고구마 소개 서적

- 『감저보』(강필리)
- 『감저신보』(김장순)
- 『종저보』(서유구)

11.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②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④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단군에 대한 인식
 ● 해설 : ③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무신집권기 고구려 건국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서사시이다.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는 사서는 「삼국유사」와 「동국통감」 등이 있다.
 ● 2019년 민주국사 P. 385~386, 768

12.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중략)...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②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삼국유사
 ● 해설 : 「삼국유사」의 기이편에 수록된 사료로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 야사, 신화 등을 수록하였다.
 ①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사서로 김대문의 「고승전」과 각훈의 「해동고승전」이 편찬되었다.
 ③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사서로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의 「동국통감」이 편찬되었다.
 ④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한 사서는 김부식에 의해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 2019년 민주국사 P. 386, 576

13.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전주화약
- 해설 : (가) 1894년 5월 8일 전주화약이다.
 - ①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1894년 4월 7일 최초로 격파하였다.
 - ② 고부군수 조병갑이 1893년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③ 고부민란 이후 안핵사 이용태가 1894년 2월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④ 청일 전쟁 이후 남접군과 북접군이 1894년 9월 논산에서 합류하여 공주 우금치 전투를 전개하였다.
- 2019년 민주국사 P. 882~885

14. (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④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신라 중대 역사적 사실
- 해설 : 9주 5소경은 신문왕 때이고 대공의 난은 해공왕 때로 신라 중대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 ① 백성(농민)에게 정전(丁田)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던 시기는 신라 중대 성덕왕 때이다.
 - ②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은 신라 상대 지증왕 때이다.
 - ③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이다.
 - ④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은 것은 신라 하대 소성왕 때이다.
- 2019년 민주국사 P. 145~147, 201

15.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 정답 : ③
- 출제 영역 : 우리나라 문화유산
- 해설 : ③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아 평계탑이라 불리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고 백제 미륵사지 석탑에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가 발견되었다.
- 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라마교 영향을 받아 건립하였다.
- ②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후기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 불교의 위상이 높아지고 양반 지주층의 성장으로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하였다.
- 2019년 민주국사 P. 241, 412, 414, 791

16.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중략)... 최종,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①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③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④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다.

- 정답 : ④
- 출제 영역 : 서원
- 해설 : ④ 서원은 학문연구와 선현의 제사(추모), 향음주례 기능을 하였던 사립 교육기관이다.
- ① 지방의 군현에 설립한 관학은 향교이다.
- ②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동몽선습」 등을 가르친 곳은 서당이다.
- ③ 성균관의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고 복시에 바로 응시 할 수 있었다.
- 2019년 민주국사 P. 532, 567

17.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 | |
|---------------|-------------|
| (가) | (나) |
| ① 조 · 일무역규칙 | 조 · 미수호통상조약 |
| ② 조 · 일무역규칙 | 조 · 러수호통상조약 |
| ③ 조 · 일수호조규부록 | 조 · 미수호통상조약 |
| ④ 조 · 일수호조규부록 | 조 · 러수호통상조약 |

- 정답 : ①
- 출제 영역 : 구한말의 조약
- 해설 : ① (가) 1876년 조·일 무역규칙(조일통상장정)으로 강화도 조약에 이어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하였고 선박은 무관세를 규정하였다.
(나) 1882년 조·미 수호통상조약은 최초로 관세가 부과되고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19년 민주국사 P. 849~850

18.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밑줄 친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 을찬진하다.
 1574년(39세)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 를 올리다.
 1575년(40세)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 를 편찬하다.

- ①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②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③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④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율곡 이이
- 해설 : 제시된 연보는 율곡 이이에 대한 내용이다.
- ② 이조좌랑은 정6품 관료로 정5품인 정랑과 더불어 이조 전랑(銓郎)이라 하여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과 같은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과 자천권이 있어 그 자리를 두고 선조 때 붕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①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기관은 승정원이다.
- ③ 왕의 정책을 간쟁하는 기관은 사간원이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던 기관은 사헌부이다.
- ④ 왕실의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던 기관은 교서관이다.
- 2019년 민주국사 P. 460, 588~589

19.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教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찌서이며...(중략)...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 ① '조선열'을 강조하며 '조선학운동'을 펼쳤다.
- ②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 ④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박은식
- 해설 : 박은식의 「유교구신론」에 대한 내용이다.
- ② 박은식의 「한국통사」에서 민족의 혼(魂)을 강조하였다.
- ① 정인보 ③ 김구 ④ 신채호
- 2019년 민주국사 P. 989, 1129, 1130

20.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 ① (나) →(가) →(라) →(다)
- ② (나) →(다) →(가) →(라)
- ③ (다) →(가) →(나) →(라)
- ④ (다) →(나) →(가) →(라)

- 정답 : ②
- 출제 영역 : 현대사 사건
- 해설 : ②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여운형, 안재홍 등 좌우익이 참여한 단체로 1945년 8월 15일 결성되었다. → (다) 모스크바3국 외상 회의는 1945년 12월 개최되어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임시 정부 수립, 신탁 통치 결정하였다. → (가) 여운형, 김규식이 주도하여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던 시기는 1946년 10월이다. →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한만의 선거에 반대하고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던 시기는 1948년 4월이다.
- 2019년 민주국사 P. 1168, 1170, 1176, 1178

